

[종합·해설]

김경준씨 귀국 임박…신당-한나라 ‘BBK 난타전’

“5대 의혹 수사하라” 맹공**신당 “귀국 시점 어떻게 …” 내통설 제기**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국내송환이 임박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5대 핵심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명박 후보를 맹폭했다. 이날 공격에는 이 후보의 저격수가 총 출동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90억원의 행방 ▲읍서널벤처스 흐령금 384억원의 행방 ▲BBK 인수자금 30억원의 출처 ▲마프(MAF) 600억원의 출처 ▲LKE뱅크 124억원의 출처 등 5대 핵심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경준씨 소환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고, 검찰 앞에서 쟁탈권리를 한다고 하고 광화문 앞에서 드러눕겠다고 하고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한나라당이 김경준을 왜 이리 두려워하는지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경준 귀국 공작설까지 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정부가 공작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뒤를 감추기 위해 외교관계까지 손상시키는 발언에 경악한다”고 비난했다.



BBK의 핵심인 김경준 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들이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5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총장의 17일 김경준씨 귀국 밝언과 관련, “검찰총장 후보자, 대검 중수부장도 모르는 김씨 귀국 시점을 이 총장이 알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과 검찰 내통설을 주장했다.

전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은 “국세청은 소득 탈루 문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중진이 귀국 공작” 맞불**한나라 “특검도 검토”…검찰 고강도 압박**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은 15일 ‘귀국 공작설’을 거듭 제기하며 범여권에 역공을 가하는 한편 전날 ‘민란’ 발언에 이어 이날도 죄악의 경우 특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며 검찰을 고강도로 압박했다.

또 김경준씨를 ‘제2의 김대업’으로 규정하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파문 축소를 시도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공정 수사로 2002년 김대업 공작사건처럼 대선에 영향을 미쳐 국민 주권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라며 “수

사 비밀이 완전 유지돼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여권 중진이 김경준을 구하기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공작설을 주장했다.

오승재 부대변인은 “김대업과 김경준은 같은 점이 많다”면서 “김대업은 각종 전과 6범의 과법치한 사기꾼이고, 김경준은 위조여권 6개를 가지고 전세계에 19개 유령회사를 세운 문서위조전문 국제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전략은 우선 김경준씨 증언의 가치를 회식시키고 수사 도중에 흘러나올 수 있는 검찰의 ‘말’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8월 당내 경선을 꼭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보인다’식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것이 결국 경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칫 경선 패배로까지 이어질 뻔했었다는 게 이명박 후보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당 ‘BBK 대책팀’에서 검찰의 부당·편파 수사시 공정수사 촉구, 총불집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전, 특검 검토 등의 5 단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설치된 클린정치위원회 ‘김경준 특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김경준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유치전 주역 6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결정을 불과 11일 앞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의 유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영역은 다르지만 2012 여수엑스포가 낙후된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과 한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한마음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 정몽구 회장=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인 정 회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의 수장으로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게 인사다.

정 회장은 전 세계 190여개국 생산·판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차 그룹 내에 ‘여수엑스포 유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이후 정 명예위원장의 출장거리는 총 7만 2천750마일. 지난 반년간 지구를 약 세 바퀴를 돌며 총리급 이상의 인사를 면담한 것은 5차례, 장·차관급 인사 90여명, 40여개국의 대사급 인사들과 접촉했다. 개최지를 결정하는 오는 27일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서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예정이다.

◇ 박준영 전남지사=박 지사는 여수엑스포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BIE회원국에 대한 유치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엑스포 개최에 필수적인 SOC사업에 들어갈 10조원의 예산 가운데 올해까지 2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고 우리나라의 표밭으로 분석되고 있는 전남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박 지사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며 막바지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오현섭 여수시장



정몽구회장



김재철위원장



박준영지사



오현섭시장



서갑원의원



정찬용부위원장



고객님의 지금 약속
대한화재 피오렌 가족드립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내 가족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대한화재
피오렌

한국 재계 대표단, 여수엑스포 日 지지 받아내

한국 재계가 여수박람회 유치에 대한 일본측의 지지를 받아냈다.

한국 재계 대표단은 14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 아미리 아키라 경상성 대신, 누카가 후쿠시로 재무성 대신과 자민당 3역에 예방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수박람회 지원, 한일정상외교(셔틀외교) 활성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증편 등 양국 협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13일 도쿄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한국 재계 인사 11명과 미타라 이 후지오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재계 인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회 한일재계회의를 열었다. 한국 재계 대표단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일본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일부 기분이 간사장, 니카이 토시히로 총무회장, 타니카와 사다카즈 정조회장 등 자민당 3역에 예방해 적극 지지 약속을 받아냈다.

